

## 보성군, 시니어 보건·의료 시책 ‘호평’... 의료비 경감 특특



보성군이 시니어 인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책이 수혜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새롭게 시작한 보

### 백내장 수술비 지원·대상포진 예방 접종 인기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보강할 것”

성군 보건·의료 시책 중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전립선질환 무료 검진 등이 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관내 협약 병원을 통해 진행되며, 1인 당 최대 2안까지 1안 당 25만원 이내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 태여야 한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5명(317안)이 지원 제도를 활용해 수술을 받았으며, 올해는 160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총 600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19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해마다 지원 연령을 낮춰 올해는 만 60세 이상(1년 이상 주소)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작년까

지 총 4,473명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았다.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발병해 극심한 통증과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8만원에서 20만 원까지 접종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백신 비용의 50%만 부담(3만7천 원)하면 된다. 전립선 질환 무료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성이면서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로 검진 할 수 있으며,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까

지 받을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실질적으로 시니어 인구 층에서 필요로 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자주 하게 되는 수술 등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보강해나가고 대상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과 전립선 질환 무료 검진은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계(850-5673)로 문의하면 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감염병 관리계(850-5695)에서 담당한다.

보성=김덕순기자

### 청암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 등급 획득

#### 광주·전남 대학 중 최고등급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최근 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 지역 전문대학 중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2008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며, 2020년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348개 대학의 428개 캠퍼스 중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98.8%)가 참여하였다. 입시전형·정보제공 기준의 선 발영역, 학습지원·운영에 대한 교수·학습영역, 내외부 시설 및 설비 영역 등에 대해 현장방문과 학생만족도 조사를 거쳤다. 서형원 총장은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중심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동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우수’등급은 대학 구 성원 도움의 결과이며, 우리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학습지원실을 통하여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어려움 없이 학습에 전념 할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장애 학생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암대학교는 2011년 3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학생들이 불편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장애인들의 교육지원에 힘쓰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가가호호 쉼터 운영’ 활발

#### 1월 중순부터 운영...전문 인력 1:1로 직접 방문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가호호 쉼터’를 운영한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치매환자 쉼터 운영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쉼터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가가호호 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가가호호 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던 집단 프로그램 대신 치매 환자의 가정으로 작업 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1:1로 직

접 방문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후 직원과 치매 환자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상담과 쉼터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540-6965),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치매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원하던 학원에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해요”

#### 영암군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및 기초학습 증진 교육비 지원’

영암군은 지역 내 학원 및 학습지사와 연계하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특기적성 및 기초학습 증

진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군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특기적성 및 기초학습 증

진 교육비 지원’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특기적성 및 기초학습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2월부터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영암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월 8-9일 양일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지역 내 학원 및 학습지사 31개소와 개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각 학원 및 학습지사는 드림스타트와 함께 대상 아동들의 특기적성 및 기초학습 증진을 위한 지원에 매년 가까이 동참하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